

현대차, 로봇·자율주행 기대 못 채워… 증권사 목표가 줄하향

증권사 6곳 잇달아 목표가 하향
증가는 두 달 새 고점 대비 반토막
본업 부진에 신사업 기대까지 후퇴
로보틱스 구체안 부재에 실망감 커져
하반기 신차 출시가 반등의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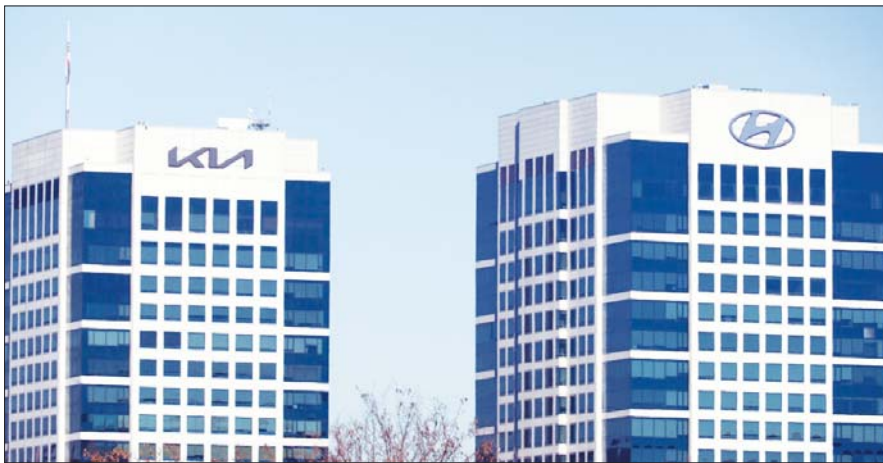
“주식시장의 기대가 높은 로봇 사업을 별도 자회사 형태로 진행하면서 밸류에이션 하락 우려. 목표주가 60만원으로 하향, 매수.”(삼성증권)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등 신사업 진행 속도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목표주가 62만원으로 하향, 매수.”(NH투자증권)

현대차의 적정 가치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8개 증권사 중 6곳이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하향하거나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대신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현대차증권 등 6곳은 7~8월 중 목표가를 11.6~33.7% 낮췄다. 한화투자증권은 6월 상향 이후 동결했고, iM증권은 8개월째 목표가를 바꾸지 않았다.

증가도 똑똑 떨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 주가는 1일 종가 기준 4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 1일 기



현대차 양재사옥.

/메트로신문

록한 52주 최고가 75만원과 비교하면 46.7% 하락한 수치다. 두 달여 만에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빠진 것이다.

현대차를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본업인 자동차 시장 때문이다.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 등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은 가치를 낮게 본다.

현대차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49조 2153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지만, 영업이익은 2조 85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감소했다.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30.8% 줄어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사 화제에 따른 생산 차질이 수익성을 끌어내렸고, 국

내 도매 판매도 16.4% 감소한 15만 7647대에 머물렀다.

하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의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사업은 성장성과 실적 가시성은 높지만 경쟁사 대비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진행 속도가 느리다”며 “신사업의 진행 속도를 고려해 중국 전기차 선도업체들의 2027년 평균 PER에 10%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6 CEO 인베스터 데이(CID)’에서 “더 많은 모델을 출시하고, 더 많은 파워트레인(동력전달) 선택지를 제공하며 신규 차

급과 신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겠다”며 “현대차는 피지컬 인공지능(AI)과 기술 기업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현대차 그룹 보스톤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관련해 진전된 사업 계획이나 비전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광식 교보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간선거 이전 행정부의 로보틱스 추가 정책 가시성이 높아진 뒤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회사의 의도로 판단되나, 높았던 시장 기대치 측면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현대차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톤다이나믹스 지분 9.65%도 사들이고 있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이 오를 계열사의 지분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현대차의 추가 지출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아틀라스의 공장 배치도 중장기적으론 인건비 감축 효과를 기대하지만, 초기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전망이 공존한다.

주주환원 정책도 주가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대차는 CID행사 당일 기보유 자사주 251만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2025~2027년 총주주환원율

35% 이상, 최소 주당배당금(DPS) 1만원, 최소 배당성향 25%, 분기 배당 2500원을 제시하며 기존 방향을 견지했지만 다음날 주가는 3% 하락 마감했다.

다만 올 하반기 베스트셀링(일정 기간 많이 팔린) 모델의 신차를 연달아 출시할 예정이라 실적이 개선될 거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판매량에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수 iM증권 연구원은 “2030년 영업이익률 목표를 종전 8~9%에서 9% 이상으로 상향했다”며 “하이브리드(HV) 판매 확대를 통한 손익 극대화와 전동화차(xEV) 규모의 경제 실현, 중장기 원가 절감 계획 등이 근거”라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자율주행이나 보스톤다이나믹스 개발 과정이 초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오히려 현대차 밸류에이션을 흔들던 논리였던 본업에서의 부진이라는 시장 우려를 일부 해소한 행사”라고 평가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메리츠증권, ‘MOUM’으로 리테일 승부수

예탁자산 71조 7000억 두 배 성장
리테일 고객도 89% 늘며 외형 확대
무료수수료 종료 앞두고 락인 강화

“투자 의사 결정의 주체와 방식, 매매 방식, 투자 상품, 거래 환경이 모두 바뀌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투자자들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투자 플랫폼을 필요로 한다. 메리츠증권은 새로운 투자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가 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MOUM(모움) 론칭 행사’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장 대표는 기업금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중심이던 수익구조를 리테일로 확장하는 전략을 주도해 왔다.

MOUM은 메리츠증권이 약 1년 6개월간 준비한 플랫폼이다. 기존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MTS)의 주식 매매 기능에 투자정보와 글로벌 커뮤니티, AI 서비스를 결합해 투자정보 탐색부터 투자자 간 소통, 거래까지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메리츠증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가 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열린 메리츠증권의 ‘MOUM 론칭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권의 온라인 전용 종합 투자계좌인 Super 365를 연결하면 정회원으로 전환돼 주식 매매는 물론 보유 관심종목 관련 정보와 AI 분석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이 MOUM을 통해 겨냥하는 것은 단순한 거래 고객 확보를 넘어 고객의 투자 과정 전반을 플랫폼 안으로 유입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증권사 리테일 시장의 경쟁이 거래 수수료 중심에

서 투자정보와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 고객 접점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존에 확보한 Super 365 고객을 MOUM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22년 말 온라인 전용 투자계좌인 Super 365를 출시했으며, 2024년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면서 리테일 고객 유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35조 4000억원이었던 메리츠증권의 리테일 예탁자산은 올해 상반기 기준 71조 7000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리테일 고객 수도 27만 8176명에서 52만 6567명으로 89.3% 증가했다.

다만 올해 말 수수료 무료 정책 종료를 앞둔 만큼 늘어난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메리츠증권은 MOUM을 통해 거래 수수료가 아닌 투자정보와 커뮤니티, AI 기능 등을 새로운 고객 락인(Lock-in) 요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유튜브 ETF·고위험상품 광고 심사 의무화

금감원, 금융투자 광고 제도개선 간담회
CCO 심의 참여·뒷광고 사후관리 강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신규 상장지수펀드(ETF)와 고위험 금융상품 광고도 앞으로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는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과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광고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선안은 광고 제작과 심사, 게시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ETF 광고 경쟁이 심해지고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이 확산하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금융투자회사가 외부에 제공하는

시황·업황 분석자료와 보도자료 등에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광고 심의에는 CCO가 참여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살펴야 한다. 유명인이나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에는 계약부터 심의·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점검표를 적용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는 ‘뒷광고’ 여부도 확인한다.

금투협의 심사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회사가 자체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하는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동영상 광고를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업계와 소비자단체·학계·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도 신설해 심사 기준과 주요 광고정책을 결정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ISA ‘5년 족쇄’ 없앴다… 납입한도 이월도 유지

일반 ISA 계약·납입 규정 현행 유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막으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도 최대 계약기간을 없애고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한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

난달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ISA 개편안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세제 혜택 일몰기한은 모두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일반 ISA는 최소 가입기간이 3년이지만 최대 계약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한도는 1억원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간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총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

입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금지할 계획이었다. ISA 세제 혜택도 2029년 말까지만 적용하는 일몰기한을 신설하려 했지만 모두 현행 유지로 돌아섰다. 정부는 수정 이유로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을 제시했다.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금융 ISA의 혜택은 당초안보다 확대됐다. 계약기간은 최초 3년·최대 10년에서 일반 ISA와 동일하게 최소 3년·최대 제한 없음으로 바뀐다.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과 총한도 2억원은 유지하되, 사용하지 않은 연간 한도는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웨스턴에셋 한국 대표 거쳐 합류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은 1일 한국대표이사 사장으로 김인근 웨스턴에셋 한국 대표(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프랭클린템플턴의 한국 현지법인인 프랭클린템플턴투자자문을 이끌며 한국 사업의 전략과 운영을 총괄한다. 국내 조직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리더십과 협력해 고객 서비스 강화와 사업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웨스턴에셋자산운용 싱가포르 법인에서 6년간 한국대표를 역임한 뒤 이번에 프랭클린템플턴에 합류했다. 자산운용 경력은 27년 이상이며, 아태지역 공



적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보험사, 주요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 고객 관리를 맡아왔다. 이전에는 블랙록자산운용과 한국은행에서도 근무했다.

김 대표는 “역동적이고 선진화된 한국 시장에서 앞으로 고객과 파트너사, 그리고 유능한 국내 팀과 함께 프랭클린템플턴이 쌓아온 탄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프랭클린템플턴은 공모·사모시장 전반에서 투자 솔루션과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다.

/허정윤 기자